

'시는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한가지다'

〈한국의 한시〉 시리즈 전40권 완간

평민사의 〈한국의 한시〉 총서가 완간됐다. 1986년 《고운 최치원 시선》을 포함한 5권이 나온 이래 12년만의 일이다.

한글시대 겨냥한 쉽고 정확한 번역

〈한국의 한시〉는 한글세대를 겨냥한 기획으로 쉽고 정확한 번역을 내세운다. 처음에는 20권짜리 기획으로 시작했으나 한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40권으로 분량을 늘렸다. 번역자인 허경진 교수(목원대 국어교육과)의 '오기'가 적중했던 셈이다. 80년대 초반에는 내로라하는 문학출판사들이 펴내는 〈현대시인총서〉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이에 자극받은 허교수는 우리의 한시도 작가별로 소개하지 말란 법이 있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드디어 40권을 돌파했다. 40권 가운데 36권은 개인 선집이고, 나머지 4권은 계층별 시선집이다.

〈한국의 한시〉는 통일신라시대의 최치원에서 구한말의 매천 황현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시인을 모두 불러모았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1백년 사이에 생존했던 시인들이 숫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이황·백광훈·최경창·이달·허난설헌·권필·허균·홍세태·매창 등 빼어난 시인이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고려에서 조선 초엽까지 유행한 송나라의 시풍이 몰락하고 당시풍이

유행한 시대적 정황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나열한 시인들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송시풍을 따르기보다는 자연스런 감정에 치중하는 당시풍을 따랐다.

계층별 시선집은 평민·여성·승려가 쓴 한시를 따로 묶었다. 특히, '평민'이라는 주제는 〈한국의 한시〉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한시의 창작과 향수는 지배계층인 양반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한국의 한시'는 그러한 상식을 무너뜨린다. 〈평민 한시선〉에 그치지 않고, 한미한 계층 출신의 시인이 다수 포진돼 있다. 〈순곡 이달 시선〉 〈유하 홍세태 시선〉 〈정래교·정민교 시선〉 〈추재 조수삼 시선〉 등이 여기에 속한다. 평민이 지은 한시의 내용 또한 상식을 배반한다. 조선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마치 70~80년대의 '민중시'를 보는 듯하다. 우선, 유하 홍세태의 과격함(?) 시론이 그렇다.

"시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성정(性情)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한가지다."

이러한 시론에 입각해 평민 시인들은 신분의 질곡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는 한계상황을 시로 승화시켰다. 홍세태는 "자기 말로는 평생 동안 강개한 뜻을 지녔다지만,/일만 권 책 읽은 게 무슨 소용 있나"(自謂平生志慨慷 讀書萬卷何所用) 한탄하거나, "연기와 노을이 배에 가득해도 굶주림을

〈한국의 한시〉는 통일신라시대의 최치원에서 구한말의 매천 황현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시인을 모두 불러모았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인들이 많고 평민·여성·승려가 쓴 한시도 따로 묶었다. 특히 '평민'이라는 주제는 이 시리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없애 주지는 못하네"(滿腹煙霞未解飢)라고 읊으며 뼈저린 현실을 통감하기도 한다.

평민 한시 중에는 2백여 년전에 씌어진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현재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많다. 차좌일이 〈출산(出山)〉을 통해 묘사한 것은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길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동으로 서로 제각기 바쁘네./'무엇하러 가느냐' 그에게 물었더니/이익이 아니면 명예를 찾아 간다네."(道多行人 東西各自去 問君何爾爲 非利即名處).

평민 시인들의 강개한 뜻도

김효일의 〈만흥(漫興)〉은 IMF 시대의 생활철학으로 부족함이 없다. "즐거움이 있으니 가난도 오히려 좋고/한가로움이 많으니 병도 또한 괜찮아라./항불을 사르다 보니

봄비도 가늘어지고/시구를 찾다 보니 새벽 종소리 들려오네./골목이 외지기에 길은 이끼로 덮였고/창이 비었기에 대나무로 울타리를 더했네./명예와 이익을 따르는 저 사람들 우스워라./세월이 다하도록 바쁘게 달리기만 하네."(원문 생략). 〈출산〉과 〈만흥〉은 〈평민 한시선〉에 수록돼 있다.

중인 신분으로 추측되는 조수삼은 이름없이 살다간 민중의 삶을 기록한 '기이(紀異)' 50수를 남겼다. 조선시대판 〈만인보〉라 할 수 있는 '기이'의 일부가 〈추재 조수삼 시선〉에 실려 있다. 〈한국의 한시〉를 번역한 허경진 교수의 학문세계와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본지 제171호(1995년 6월 5일)와 제233호(1998년 4월 5일)에 실린 관련기사가 잘 나와 있다. 〈최성일〉

범신론적 시선으로 찬양한 자연

〈장 지오노 선집〉 1차분 3권 출간

자연의 모든 존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가로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장 지오노 선집이 출간됐다. 모두 10권으로 기획된 선집 가운데 초기작 〈언덕〉, 〈보뮈뉴에서 온 사람〉, 〈세상의 노래〉 등 세 권이 우선 1차분으로 나왔다. 꽃·나무·흙의 세 요소를 엮어 자연을 예찬하는 지오노의 초기 작품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1928년 발표된 〈언덕〉은 무명의 지오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작품. 작은 마을 바스

티드 블랑쉬에 샘이 마르고, 어린 소녀가 열병에 시달리는 등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 최연장자 자네 노인은 언덕의 분노가 마을에 재앙을 가져왔음을 밝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화해를 시도한다. 〈보뮈뉴에서 온 사람〉은 언어의 도움 없이 단 한번의 시선으로 사랑을 하고, 하모니카의 선율로 그 사랑을 이룬 보뮈뉴에서 온 '알뱅'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다. 이 두 권은 〈소생〉과 함께 '목신 3부작'을 이루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



오는 '판'의 이중적 이미지를 자연에 대입, 자연이 감춘 위대하면서도 음험한 힘을 보여준다.

늪은 나무꾼의 긴 여행을 그린 〈세상의 노

래〉는 지오노의 완숙한 솜씨로 빚어진 자연에 바치는 송가다. 이 작품은 자연을 물화시킴으로써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과 죽음, 재생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고유한 생명체로 다룬다. 지오노 스스로 "나는 세상의 일부다. 나는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맛보는 것

이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작품세계의 대표작이다. 〈이현주〉

이학사/A5신/각 300면 내외/각 5000·6500원